

중금리대출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모두말씀>

2018년 포용적 금융 추진방향 및 중금리대출 활성화 계획

2018.1.25.(목) 14:00~15:30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습니다.

I.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최종구입니다.

오늘은 금융혁신 추진방향 중

“포용적 금융”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일관된 금융혁신을 위해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경쟁 촉진과 함께

포용적 금융을 4대 전략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를 위해 최고금리 인하,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영세·중소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담 경감 등을

적극 추진하여 어려운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일각에서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다거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리인상 기조 등
대내외 경제환경이 변화하고 있고,
양극화 등 우리 경제사회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대응능력이 부족한 서민에 대한 지원은 절실합니다.

금융권이 IT 발달에 따라 향상된 선별(screening) 능력을
우량고객 확보에만 활용하고
서민에 대한 금융 지원에는 소홀한 점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포용적 금융은
금융권 스스로는 간과하기 쉬운
서민경제 곳곳에, 막힘없이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입(light footprint)이고,

지속적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올해 금융위원회는
그간 제시했던 포용적 금융의 청사진을 바탕으로
포용적 금융이 한국 금융의 문화로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II. 2018년 포용적 금융 정책방향

< ①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 >

이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은 “서민의 금융부담 완화”입니다.

우선, '18년중 총 11.2조원* 규모의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최고금리 인하, 카드수수료 경감 등 서민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정책서민자금 7조원, 중금리대출 4.2조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특례 대환상품인 안전망 대출*을 포함하여 정책서민자금을 7조원 공급하는 한편,

* 3년간 총 1조원 공급

중금리대출이 4.2조원 공급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사잇돌 대출의 공급한도도 확대하겠습니다.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되면 최대 293만명의 이자부담이 연 1.1조원 경감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② 청년, 중·장년,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

다음으로,

서민의 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청년, 중·장년층 및 고령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무한한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청년층에 대해서는

그 잠재력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융이용 기회가 부여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주거안정을 위해

취업준비자금과 비주택 주거자금 등

소액금융을 확대하는 한편,

연체중인 청년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채무조정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청년병사의 경우 전역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납입한도를 확대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에 대해서도
ISA의 세제혜택을 강화*하고
중도인출을 허용하는 등 제도가 개선된 만큼,
원활한 재산 형성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서민형 ISA 비과세한도를 250만원→400만원으로 확대

고령층에 대해서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및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안정적인 노후보장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제혜택 확대*,
자산운용 규제 개선** 등을 통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제고하고,

* 연금펀드·신탁에서 발생한 국내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 대체투자 자산 및 해외주식 투자대상국 범위 확대 등

신탁방식 도입*,
실거주 요건 완화 등을 통해
주택연금 수급혜택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주택연금 가입주택을 신탁을 통해 실수요자에게 임대

< ③ 취약채무자 보호 강화 >

채무자가 연체부담으로 인해
경제활동에 있어 겪는 애로를 최소화하도록
“취약채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단계별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연체발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위해
사전 상담·관리 강화,
원금상환 유예 등을 통해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겠습니다.

연체발생時에는
연체가산금리 인하 등을 통해
채무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부실채권 매각 제한 등
채권추심 규제를 정비하여
연체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겠습니다.

장기소액연체채권을 매입·소각하기 위한
전담기구도 2월중 설립할 계획입니다.

< ④ 금융권의 사회적 책임 강화 >

그간 국가적 차원의 지원으로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해왔던 금융권이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국회,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충분히 설명하고,
금융소비자의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판매규제를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겠습니다.

개인신용평가체계도 개선하여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등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 방안을
1분기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Ⅲ. 중금리대출 활성화 방안

오늘 간담회에서는
“포용적 금융” 정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인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간 사잇돌대출은
은행,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을 통해
'17년말까지 총 1.3조원이 공급되는 등
중금리대출 시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습니다.

또한, 사잇돌대출을 마중물로 하여
금융회사의 자체 중금리대출 공급도
큰 폭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신용대출 시장규모나
보증보험의 보증한도 등을 감안할 때
사잇돌대출만으로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잇돌대출 공급한도를 확대하여
마중물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민간 자체적인 중금리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 등
금융시장의 혁신적인 시도가
소비자에게 더 낮은 금리, 더 많은 혜택으로 이어지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도
금융소비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홍보,
신용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공유 등을 통해
중금리대출 활성화에 협조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 인터넷전문은행 등을 중심으로
중금리대출 연간 공급규모가 '17년 3.5조원에서
'22년 7조원으로 크게 확대되어
금융시장의 금리단층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IV. 마무리말씀

중금리대출은 금융회사가
서민층에게 적절한 금리로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금융이 스스로 서민을 감싸안고 받아들이는
“포용(包容)적 금융”의 취지를
가장 잘 구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변 방안에 따라 중금리대출이 활성화되면
서민의 금리부담이
연간 3,500억원 가량 경감될 것으로 추정되며,

포용적 금융 문화를 착근하는
주춧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금융기관장님들과 협회 및 유관기관장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